

# 解冤相生の 實踐方案에 관한 研究

- 布德 · 教化를 中心으로 -

金正泰\*

## 目 次

I. 머리말	4. 포덕 · 교화의 방법
II. 해원상생의 이해와 실천의 필연성	5. 포덕 · 교화의 의의
1. 해원상생의 이해	6. 포덕 · 교화에 나타난 특징
2. 해원상생 실천의 필연성	IV. 포덕 · 교화의 종교적 행위
III. 해원상생의 실천방안	1. 종교적 행위의 성격
1. 포덕 · 교화의 일반적 이해	2. 종교적 행위의 특성
2. 포덕 · 교화의 정의	3. 포덕 · 교화의 종교적 행위
3. 포덕 · 교화의 목적	V. 맺음말

## I. 머리말

해원상생의 실천에 포덕 · 교화가 밀접한 연관성<sup>1)</sup>을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해원상생의 진리를 현실

\*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1) “해원상생 대도의 참뜻을 전하는 것이 포덕이며, 포덕천하(布德天下)가 되어야 광계창생이 되는 것이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서울: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21쪽. 이하의 내용은 『대순지침』과 쪽으로 표기한다.  
“포덕은 해원상생 · 보은상생의 양 원리인 대도의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다.” 『대순지침』, 19쪽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포덕·교화가 지니고 있는 내용을 탐구하여 그것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단의 사업이 포덕·교화·수도 공부와 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제반 교육사업으로 나누어<sup>2)</sup> 지고, 우리 종단의 기본사업이 포덕·교화·수도 공부로 분류되며,<sup>3)</sup> 그것을 성·경·신을 다하여 목적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라.<sup>4)</sup> 라는 『대순지침』의 말씀은 포덕·교화가 종단사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된다.

오늘날 종단(宗團)의 경이적(驚異的) 발달과 교세신장(教勢伸長)의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종단의 기본사업이 그 바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sup>5)</sup> 따라서 포덕·교화의 중대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와 바른 실천은 종교적 활동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질있는 교직자의 양성에 있어 포덕·교화는 무엇보다 우선되어 강조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수도인(修道人)이 그간 배워왔던 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를 현실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도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며, 또한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종교적 활동의 전반을 차지하는 포덕·교화는 신앙인들에 있어 참다운 수도의 진면목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다양한 경험들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한다.

앞서 논의된 것처럼 포덕·교화가 종단의 기본사업임을 이해한다면 연구의 필요성은 너무도 절실한 것이다. 그런데 그간 이러한 연구의 필연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원상생의 대표적인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포덕·교화에 관한 이해를 통해 해원

2) 『대순지침』, 97쪽 참조

3) 『대순지침』, 위와 같은 곳

4) 『대순지침』, 위와 같은 곳

5) 이와 관련하여 『대순지침』, 98쪽에서는 “3대 중요사업을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종단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사회의 공신력이 높아져 덕화선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상생의 실천이 가져다 주는 의미의 파악과 함께 포덕·교화가 지니는 입장을 정리하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해원상생이 무엇보다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그것의 개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원상생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으로 그것의 간략한 개념파악을 통해 실천적 당위성을 이해하고, 그를 통해 해원상생의 구체적 실천원리로 대두되는 포덕·교화와 관련한 내용을 『전경』과 『대순지침』을 중심으로 탐구하여 그것을 정의·특징·방법·목적·의의 등으로 세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해원상생을 현실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끝으로 포덕·교화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종교적 활동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 의미를 살피는 일 또한 중요한 것이므로 그와 관련한 내용을 통해 그것이 지니고 있는 간략한 종교적 이해를 살펴 보고자 한다.

## Ⅱ. 해원상생의 이해와 실천의 필연성

### 1. 해원상생의 이해

해원상생은 쌓였던 원(冤)을 풀고 서로 잘살게 한다(相生)<sup>6)</sup>한다는 뜻으로

6) 원(冤)은 “屈也，從 宀 冤，冤在 宀 下不得走益屈折也，枉曲之意敗此”라 풀이되는데 이는 “굽다, 구부리다, 한 마리 토끼가 덮개에 갇혀서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결국 무고하게 덮어쓴 죄로 억울함과 원통함이 쌓인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설문해자 참조

朴龍哲, 「解冤相生에서 冤에 관한 연구」, 『대진논총』 제 3집, (포천:대진대학교 출판부, 1995) 67쪽.

7) 상생(相生)은 오행(五行)의 두가지 작용인 상생(相生)과 상극(相克)에서 그것의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대순진리에서 나타나는 상생은 오행에서 보이는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오행의 상생작용이 목→화→토→금→수→목 라는 관계에 따라 상생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대순진리에서 나타내는 상생(相生)은 이러한 일방적(一方的)인 관계나 적용범위의 한계(限界)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일방적 관계나 대상의 제약을 갖지 않고 모든 것에 상생의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되며, 그것은 대순진리를 나타내는 대명사(代名詞)로 쓰여질 만큼 대순진리의 교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나타내는 종지(宗旨)인 것이다. 따라서 그 중요성 만큼이나 그 내용과 의미가 대단히 방대한 것이어서 해원상생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순진리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의 바탕이 필요할 정도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장에서는 해원상생 실천의 이해를 파악하기 위해 해원상생 출현의 배경과 그 필연성을 중심으로 그것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대순진리에서 해원상생의 출현배경과 그 출현의 필연성(必然性)은 선천의 현실에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순진리에서는 선천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수화금목대시이성 수생어화 고천하무상극지리”(水火金木待時以成 水生於火 故天下無相克之理 수화금목이 때를 기다려 이루었으니(성공하니) 불에서 물이 생(生)하니 고로 천하에 상극이 없는 이치이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서울:대순진리회 출판부, 1974), 교운 1장 66절.182쪽. 이하의 표기는 『典經』과 장 절로 표기한다.

수생어화 화생어수 금생어목 목생어금 기용가지연후 방가위신인야(水生於火 火生於水 金生於木 木生於金 其用可知然後 方可謂神人也 “화에서 수가 생하고 수에서 화가 생하고 목에서 금이 생하고 금에서 목이 생하니 그것을 쓰고 아는 연후에 가히 신인(神人)이라고 이를 수 있다.”) 『典經』, 제생 43절

결론적으로 대순진리에서 표현되고 있는 상생은 기존의 오행에서 나타나는 상생과 그 내용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오행에서의 상생은 서로 서로 주고받는 상생적 관계가 아닌 목→화→토→금→수→목→이라는 일방적인 관계를 통한 상생이라면 대순진리에 나타 상생은 일방적인 상생이 아닌 서로 서로 주고받고 생하게 하는 관계를(수↔화 목↔금) 나타내는 새로운 의미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증산은 선천과 후천을 상극과 상생으로 대비시킨 것은 기존의 음양오행설의 개념적 규정예 기초하여 종교적 구원을 강조한 주장으로 이해된다. 지나간 세계와 앞으로 올 세계를 엄격히 구분하여 그 변혁의 주체와 중심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에서 증산은 상극과 상생을 세계를 지배하는 기본 원리로서 새롭게 해석했던 것이다. 상극이나 상생만이 지배하는 세계는 상정할 수 없으므로 증산이 주장한 선천은 상극이 후천은 상생이 보다 우세한 원리로 전개되는 세계라고 이해된다.”고 하였다. 김탁,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5, 78쪽

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sup>8)</sup>

라는 내용에서 그것의 분명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典經』의 내용은 상제께서 진단하신 선천세계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선천세계는 인간과 사물을 비롯하여 세상에 모든 것이 상극에 지배되어 있었으므로 그로 인해 원한이 발생하고, 그것이 다시 쌓이고 맺혀 상도(常道)가 무너지고 급기야는 무도병(無道病)에 걸린 진멸지경(盡滅之境)이 되었다.

이렇듯 참혹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선천세계는 구제(救濟)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세계이며, 이러한 선천세계를 광구(匡球)<sup>9)</sup>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다름 아닌 원을 풀어 상생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해원상생(解冤相生)이 그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해원상생은 타종교의 사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진리인 것이며,<sup>10)</sup> 동시에 해원상생의 원리는 선천세계의 전체속에 적용되는 특징을 지니게 되는 독창성을 보이고 있다.<sup>11)</sup>

원을 맺는 일은 억압을 통해 발전을 저해<sup>12)</sup>하는 일이라면 해원은 억압되

8) 『典經』, 공사 1장 3절 참조

9) 대순진리는 단순히 기존의 것을 구제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그것의 해결을 통해 완전한 구제를 목적으로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天地公事)가 있는데, 천지공사의 방법에는 기존의 것을 뜯어 고치는 개조(改造)의 방법과 새롭게 지어 만드시는 창조(創造)의 방법이 있다. 이 때 개조의 방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상극적인 것을 뜯어 고치는 것에 쓰여졌으며, 상생적인 것을 지어 만드는 방법에는 창조(創造)의 방법이 쓰여졌는데, 광구(匡救)란 이러한 일련의 공사적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 김형효는 우리민족의 고유사상인 풍류도(風流道)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새로운 사상이 바로 상제님의 해원상생사상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상제님의 사상이 한국사상사에서 저항(抵抗)의 병리학(病理學)을 대신하여 창조(創造)의 생리학(生理學)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김형효, 「원시반본(原始返本)과 해원사상에 대한 철학적 성찰」, 『증산사상연구』, 제 5집 (서울: 태광문화사, 1979), 48쪽~57쪽 참조.

11) 『典經』, 행록 2장 15절의 내용을 참조하면 상제께서 대원사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오셨을 때 산속의 금수(禽獸)의 무리들이 모여들어 상제님을 반기면서 무엇을 애원하는 듯 하였는데 상제께서는 이러한 광경을 보시고 「너희 무리들도 후천 해원을 구하려 함인가」 하셨는데 금수들이 이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머리를 숙였는데 상제께서 이를 보시고 「알았으니 물러들 가있어라」 하신 내용이 나타난다. 이는 해원의 대상이 인간뿐이 아닌 금수초목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2) 『典經』, 예시 8절의 내용을 참조하면 상제께서는 선천세계에서 개벽이 일어나

고 막히었던 것을 통하게 하여 무한한 발전과 발달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원상생의 진리는 상생(相生)의 후천선경을 이루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제께서는 해원상생의 진리를 통해 세계의 평화와 후천선경 건설을 목적으로 천·지·인 삼계의 해원공사를 통해 구것을 다각적으로 실천하셨음을 이해하게 된다.

해원(解冤)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천지공사의 내용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하기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대순사상논총 1집을 통해 참조하기를 바란다.

## 2. 해원상생 실천의 필연성

이 장에서는 포덕·교화를 통한 해원상생 실천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에 앞서 해원상생 실천의 필연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포덕·교화가 해원상생을 현실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면 그에 앞서 해원상생을 실천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밝히는 일은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대강(大綱)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될 때 현실속에서 포덕과 교화가 지니는 올바른 실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해원상생의 실천의 필연성이 지니는 전반적인 내용을 『典經』과 『大巡指針』의 내용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해원시대이므로 덕을 닦고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라. ...13) <예문 1>

...후천 해원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써 갚아야 한다. ...14) <예문 2>

---

지 아니한 근원적인 원인을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여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그로 인해 천·지·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한다 있다고 지적하셨다. 참고로 대순진리에서 개혁은 발전과 발달을 위한 전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극에 따른 원과 한은 발달을 저해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13) 『典經』, 교법 2장 20절

14) 『典經』, 교법 3장 15절

위의 <예문 1·2>의 내용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제께서는 해원시대를 강조하면서 해원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계심을 이해하게 되는데, 해원상생 실천의 필연성과 관련하여 참고로 대순진리에서 나타나는 시대관(時代觀)을 살펴보자.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시대는 대체로 포원시대(抱冤時代)·해원시대(解冤時代)·상생시대(相生時代)로 나타나는데 포원시대는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행하시기 이전의 시대로 선천의 상극에 따른 원과 한이 쌓이고 맺혀있던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상제께서 행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를 통해 선천세계에 쌓였던 수 많은 원한(冤恨)이 사라지게 되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그 결과 선천에서 쌓이고 맺혔던 수 많은 상극적 원한이 도수에 따라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풀려나가는 해원시대를 맞이하게 되며,<sup>15)</sup> 그것을 통해 상생(相生)의 후천세계가 도래함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전경』을 통해 누차에 걸쳐 수 많은 언급을 통해 나타남을 살펴볼 때, 우리는 여기에서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에 의해 펼쳐지는 시대의 변화와 그것에 의해 나타나는 시대관을 통해 그 양태(樣態)를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천지공사를 통해 맺히고 쌓였던 원한이 도수에 따라 자연적으로 풀려나가는 해원의 과정을 통해 해원시대가 도래하게 되며 이러한 해원시대의 도래는 결국 후천의 상생시대로 이어지게 되어 상극과 원한이 없는 화평의 시대를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원시대는 상생의 후천시대를 이루기 위한 전단계(前段階) 또는 전환기적(轉換期的) 과정으로 해석되며, 해원시대를 통해 상생시대가 이루어짐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따라서 해원시대는 후천선경의 상생시대를 이루기 위한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기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원상생 실천의 필연성은 해원시대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해원상생의 목적이 후천선경을 건설하는 중요

15) 『典經』, 교법 3장 27절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무위이화(無爲而化)로 표현하고 계시며, 동시에 무위이화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체적 존재가 상제이심을 극명하게 밝히고 있다.

한 방법임을 감안한다면 해원상생은 후천선경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체(要諦)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원상생의 실천은 서로가 맺힌 원을 풀고 상생·조화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후천선경을 건설이 가능한 것이며, 그것은 이 시대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정신(時代精神)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관을 이해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직 상생(相生)의 후천시대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한이 풀려나가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sup>16)</sup> 다시말하면 상생의 후천시대를 맞이하는 준비기간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는 무엇보다 해원상생의 실천이 강력히 요청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원상생의 실천은 상제께서 제시하신 시대가 요청하는 당위적 실천원리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원상생을 실천해야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먼저 해원시대라는 시대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해원상생의 실천이 결과적으로 후천의 상생시대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바람직한 윤리·도덕적 위상을 정립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면서 실천적 당위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후천의 상생시대를 맞이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다음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해원(解冤)은 척(慼)을 푸는 일이며 척을 맺는 것도 나요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풀므로 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니, 양편의 척이 풀려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sup>17)</sup>

위의 <예문>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볼 때 해원의 가장 중요한 주체자가

16) 『典經』, 공사, 1장 32절의 내용을 참조하면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할 수 대표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티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고 박 공우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때 공우가 상제를 모시고 태인읍을 지나는데 두 노파가 상제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기에 상제께서 길을 비켜 외면하셨도다.」

17) 『대순지침』, 27쪽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천세계가 파멸의 세계상을 맞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sup>18)</sup>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해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가 먼저 원을 풀고자 하는 노력을 행할 때 그것을 통해 타 존재가 지니고 있었던 원한이 풀려나가 해원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며, 해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상생의 후천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해원상생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그것의 실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며, 우리는 현실속에서 그것의 명확한 이해와 실천이 강하게 요구됨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수도인의 입장에서 해원상생을 실천해야 하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보자.

신명공판(神明公判)이란 운수를 받는 자리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과정에서 먼저 받게 되므로, 상제께서도 “나는 해마(解魔)를 위주하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복마(伏魔)의 발동이 있으니 복마의 발동을 잘 견뎌야 해원하리라.”고 타이르셨으니 깊이 명심하라.<sup>19)</sup>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운수를 받기 위해서는 수도과정에서 발생하는 복마의 발동을 잘 참고 견디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을 이룩했을 때 궁극적인 해원을 이루게됨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도를 통해 운수(도통)<sup>20)</sup>를 받는 일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으로, 수도의 목적이 도통<sup>21)</sup>임을 감안한다면, 수도인에게 있어서 궁극적 해원이란 결국 도통을 받는 일이 된다. 따라서 해원상생의 실천은 수도인에게 있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원상생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노력이

18) 『典經』, 공사 3장 29절의 내용을 참조 하면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의 기운을 막히함을...이해하게 되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원한을 풀고 상생대도의 가르침을 전하신 것이 상제님의 뜻임을 예시,6절의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19) 『대순지침』, 94쪽

20) 이와 관련하여 『대순지침』, 38쪽에서는 “운수를 받는다고들 하나 그것 역시 도를 닦아 도통하는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보면 운수의 궁극적인 내용이나 결과는 도통을 통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1) 『대순지침』, 37쪽 참조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그것의 구체적 내용을 아래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자.

포덕(布德)은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양 원리인 대도의 이치를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다.<sup>22)</sup>

이러한 사실은 해원상생의 구체적 실천이 포덕(布德)이며, 포덕은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양 원리인 대도의 이치를 바르게 알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포덕을 통해 실천되어지는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실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자.

해원상생·보은상생은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남을 잘되게 하라”는 진리이니, 화합·단결·상부상조를 강조하고 그것을 실천토록 교화하라.<sup>23)</sup>

이렇듯 위의 예문에 나타난 내용을 종합하면 해원상생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포덕·교화가 중요한 원리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상생의 후천시대를 맞이하는 준비기간에는 무엇보다 해원·보은상생의 실천이 강력히 요청되는 것이며, 그것의 구체적 실천은 연원(淵源)을 중심으로한 종단의 종교적 사업인 포덕을 통해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됨을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포덕과 교화가 종단사업의 중핵(中核)을 이루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며, 이것은 결국 종단사업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계기임과 동시에 대순진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종교활동 내지는 종교행위의 주체가 포덕임을 다시금 강조되고 있는 것라고 할 수 있다.

---

22) 「대순지침」, 19쪽

23) 「대순지침」, 27쪽

### Ⅲ. 해원상생의 실천방안

#### 1. 포덕·교화에 관한 일반적 이해

포덕·교화는 중요한 종교적 행위이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포덕·교화와 비슷한 내용으로 포교(布教)란 말이 쓰이고 전도(傳道)란 말도 사용된다.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포덕은 덕(德)을 편다<sup>24)</sup>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덕은 개인이 인격수련을 통해 얻어낸 품행에서 비롯되는 덕이라기 보다는 상제님의 덕을 얻어(得) 그것을 퍼는 것이 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제시된 포교나 전도가 자기의 신앙이나 배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반해 대순진리에서 나타내고 있는 포덕은 자신이 믿고 얻게될 득(得)을 나누어 갖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sup>25)</sup> 이러한 과정에서 포덕하려는 사람(전도인(傳道人))<sup>26)</sup>은 포덕을 받는 사람(입도자(入道者))<sup>27)</sup>에게 대개 교화(教化)라는 방법을 통해 그것을 전달하게 되는 관련성을 지니게 되므로 포덕과 교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러면 교화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 의미를 살펴보자.

교화(教化)란 교육(教育)하여 감화(感化)시키거나<sup>28)</sup> 또는 도덕면이나 교양면으로 가르쳐서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불교에서는 불법을 가르쳐 착하게 하는것<sup>29)</sup>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대순진리의 종교적 활동에 있어 포덕과 교화는 구분될 수 있는 소지의 것이지만 앞서 언급된 것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포덕이 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

24) 포덕은 덕을 편다는 말이니 겸허(謙虛)와 지혜의 덕으로... 『대순지침』, 19쪽

25) 앞으로의 선경 세계에 동참할 길을 알려주는 일을 우리 도는 포덕이라 한다.

『대순지침』, 44쪽

또한 이와 관련하여

포덕이란 상제님께서 광구천하(匡救天下)와 광제창생 하시려고 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널리 알려 지상낙원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 『대순지침』,

21쪽

26) 『대순지침』, 15쪽 참조

27) 『대순지침』, 86쪽 참조

28)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辭典』(서울:民衆書林, 1990) 560쪽 참조

29) 양주동 감수, 『국어대사전』, (서울:善一文化社, 1977), 231쪽 참조

를 널리 알려 많은 사람이 선경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케 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福)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과정에서 그것을 바르게 전달해야 하는 방법의 중요성이 요청 된다. 따라서 교화는 포덕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바르게 알리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포덕을 행함에 있어 교화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성을 지니게 되므로 양자(兩者)는 마치 수레와 수레안에 담겨 있는 보물과도 같은 관계를 지니게 된다. 즉 수레안에 담겨 있는 보물이 포덕이라면 수레는 교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물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수레를 바로 끄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처럼 포덕과 교화는 그것을 끌어서 전달하는 주체가 하나이므로 이러한 양자의 관계를 정리한다면 포덕은 목적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교화는 목적을 전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된다. 이렇듯 양자는 분명히 그 역할과 구분이 명확한 것이기는 하나, 그 주체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의 내용에서는 『전경』과 『대순지침』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포덕·교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것이 지니고 있는 정의·특징·방법·의의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에 관한 이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2. 포덕·교화의 정의

### (1) 포덕의 정의

포덕(布德)은 본래 천도교(天道敎)에서 전도(傳道)를 일컫는 말로 한울님의 덕을 세상에 편다는 뜻으로<sup>30)</sup> 쓰여졌다. 그런데 대순진리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를 함유(含有)하고는 있지만, 그것 외에 다른 특성이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특징을 『전경』과 『대순지침』에 나타난 내용에 기초하여 그것의 분류와 분석을 통해 포덕이 지니는 정의를 살펴보자.

먼저 『전경』과 『대순지침』에서 포덕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양주동 감수, 위의 책, 2161쪽 참조

상제께서 어느날 류찬명(柳贊明)과 김자현(金自賢) 두 종도를 앞세우고 각각 십만인에게 포덕하라고 말씀하시니 찬명은 곧 응낙하였으나 자현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상제의 재촉을 받고 비로소 응낙하느니라. 이때 상제께서 「내가 평천하 할 터이니 너희는 치천하 하라. 치천하는 오십년 공부이니라. 매인이 여섯명씩 포덕하라」 고 이르시고...<sup>31)</sup>

먼저 『전경』에 나타난 포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제께서는 위의 예문에 나타난 내용처럼 종도들에게 포덕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것과 관련하여 평천하와 치천하에 관한 언급을 하고 계신다. 이러한 사실은 포덕이 평천하와 치천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면 포덕이 지니는 근원적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평천하와 치천하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포덕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평천하(平天下)는 일차적으로 상제께서 하시는 일 즉 천지공사(天地公事)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며, 치천하(治天下)는 상제님 이외의 존재의 몫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평천하(平天下)는 일반적으로 “천하를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것의 구체적 내용은 동양의 고전(古典)인 『大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예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평천하의 구체적인 의미는 상제께서 행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의 결과로 보여진다. 다시말하면 천지공사를 통해 열려지는 후천선경의 의미와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sup>32)</sup> 그러면 앞서 제시된 해석처럼 평천하의 구체적 내용이 상제께서 이룩하신 천지공사의 결과라고 해석 한다면 그에 수반되는 50년의 치천하(治天下)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의문과 함께 관심이 집중되는데, 그것과 관련한 『典經』의 내용을 통해 50년의 공부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31) 『典經』, 행록 3장 31절

32) 이와 관련하여 『대순지침』, 21쪽에는 “포덕이란 상제님께서 광구천하(匡救天下)와 광제창생 하시려고 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널리 알려 지상낙원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라고 포덕의 의미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도주께서 정유년 十一月 二十一日 자시부터 무술년 三月 三일까지 도장에서 불면 불휴하고 백일도수를 마치시니라. 五일에 심히 괴로와 하시므로 한의사와 양의사를 불러왔으되 「때가 늦었도다」고 이르시니라. 도주께서 이튿날 미시에 간부 전원을 문 밖에 시럽케 한후 도전 박한경을 가까이 하고 도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도의 운영 전반을 말도록 분부를 내리고 「오십년 공부 종필(五十年工夫終畢)이며 지기 금지 사월래(至氣今至四月來)가 금년이다. 나는 간다.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행하여 오던 대로 잘 행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문밖을 향하여 「도적놈」을 세번 부르시더니 화천하시니라. 무술년 三月 六일 미시요. 양력으로 一九五八년 四月 二十四일이요. 수는 六十四세로다.<sup>33)</sup>

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50년 치천하의 공부는 도주께서 행하신 총체적인 종교활동의 전반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도주께서는 구천상제님으로 부터 종통을 계승하신 후에 고국에서 상제님께서 짜 놓으신 천지공사를 풀어나가시는 공부과정과 그러한 과정에서 도주님을 따르던 종도들에게 종단(宗團)의 창설(創設)을 통하여 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를 가르치고 펼치셨다. 이러한 종교적 활동은 그 후 계속 이어져 도주께서는 화천하시기 직전까지 그것을 행하셨으며, 그러한 50년의 종교적 활동은 도전님의 종통계승을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총체적 종교활동의 결과는 포덕·교화를 통해 현실속에서 펼쳐지며, 표현되었으므로, 포덕은 도주께서 행하셨던 50년간의 종교활동의 전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다음의 『전경』 내용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도주께서 기유년부터 신사년에 이르기까지 도수에 의한 공부와 포교에 힘을 다하시니 신도의 무리가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니라. 그러나 일본이 이차 대전을 일으키고 종교단체 해산령을 내리니 도주는 전국 각지의 종도들을 모으고 인덕도수와 잠복도수를 말씀하시며 「그대들은 포덕하여 제민하였도다. 각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와 처자를 공양하되 찾을 날을 기다리라.」 이 선포후에 도장은 일본 총독부에 기증되니 도주께서는 고향인 회문리로 돌아가셨도다.<sup>34)</sup>

이처럼 50년 공부의 치천하는 도주님을 중심으로 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

33) 「典經」, 교운 2장 66절

34) 「典經」, 교운 2장 43절

가 계승되면서 포덕·교화라는 종교적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펼쳐진다.

위의 예문에 나타난 “그대들은 포덕하여 제민(濟民)하였도다” 라는 말씀은 그러한 의미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포덕과 관련하여 50년의 치천하는 제민(濟民)과 깊은 관련성을 보이는데, 제민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민이란 구세제민(救世濟民)의 약어(略語) 뜻하는 것이면서 백성을 제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백성을 다스린다는 내용은 치천하(治天下)의 의미와 상통하게 됨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듯 도주께서는 상제님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펼치시기 위해 앞서 언급된 것처럼 종단의 창립과 더불어 시행되었던 포덕·교화를 현실속에서 펼쳐나감으로서, 상제님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알리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상제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치천하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상제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노력들이 세상에 구체화 되면서 종도들은 상제님의 진리를 통해 제도되고 제민되어 치천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구천상제께서 “너희들의 뭉” 이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신 포덕의 궁극적 의미일 것이다. 아래의 『전경』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상제께서 六月 어느날 천지공사를 마치신 후 “布教五十年工夫終畢”이라 쓰신 종이를 불사르시고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伊尹이 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를 깨닫고 成湯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나니 이제 그 도수를 써서 물셀 틈 없이 굳게 짜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하셨도다.<sup>35)</sup>

이처럼 50년 공부로 표현되는 치천하의 공부는 포덕·교화로 그것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위의 내용에서 상징되는 것처럼 상제께서 짜놓으신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아래의 내용을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5) 『典經』, 공사 3장 37절

해원상생 대도의 참뜻을 전하는 것이 포덕이며, 포덕천하(布德天下)가 되어야 광제창생이 되는 것이다.<sup>36)</sup>

그런데 50년 공부란 말에 주목할 때, 그것은 단순히 도주님의 공부와 종교적 활동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앞의 『전경』 예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주께서 화천하시면서 유명(遺命)으로 도전(都典)님에게 종통을 계승하셨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그것은 분명 대순진리회를 창건하신 도전님의 종교적 활동과도 깊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도주님·도전님의 공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sup>37)</sup>

결론적으로 포덕이 지니는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50년 공부와 치천하, 그리고 제민(濟民)과 연관하여 그것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포덕은 상제께서 도수로써 짜 놓으신 천지공사에 인간이 참여<sup>38)</sup>하여 상제님의 의지와 이념을 현실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과정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그것의 구체적 과정인 포덕을 통해 치천하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36) 「대순지침」, 21쪽

37) 50년공부와 관련하여 그것을 「典經」 교운 2장 66절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주께서는 화천하시기에 앞서 도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도의 운영 전반을 맡도록 분부를 내리시고 「오십년 공부 종필(五十年工夫終畢)이며 지기 금지 사월래(至氣今至四月來)가 금년이다. 나는 간다.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행하여 오던 대로 잘 행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라는 내용을 감안한다면 이는 분명 도주님의 공부와 깊은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도주께서는 15세의 봉천명의 과정으로부터 50세가 되시던 64세의 화천까지 50년간을 상제님의 도수와 공부를 행하셨음을 주목할 때 그것과의 관련성은 분명하게 인식된다. 또한 도전님께서도 1947년 입도(入道)하시어 1996년 화천까지 50년간을 양위상제님의 도수와 공부 그리고 대업의 유지를 받드신 생애를 살펴볼 때 50년 공부는 구천상제님의 대업을 계승하는 공부의 과정이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포덕이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이는 결국 종단의 정통성을 포덕이라는 종교적 활동과 사업을 통해 재확인되는 내용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38) 이와 관련하여 「典經」, 예시 17절의 내용을 참조하면

상제께서는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내용을 감안한다면 뒤에 다시 언급이 있겠지만 포덕은 천지공사에 인간이 참여하여 상제님의 뜻을 이루는 성스러운 종교적 행위임을 짐작하게 된다.



며, 상제께서 펼치신 광구천하(匡救天下)와 구제창생(救濟蒼生)의 목적이 실현됨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방안이 포덕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포덕은 현실속에서 양위 상제님과 도전님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통해 목적실현을 이룰 수 있는 대표적 실천방안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포덕이 지니는 정의와 의미에서 우리는 상제님과 도주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종단의 정통성과 양위 상제님의 뜻을 이어 받드는 중요한 종단사업이 포덕임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아래의 내용에서 천명되는 것처럼 해원상생의 구체적 실천인 선경세계에 동참할 길을 알려주는 대인접촉임을 이해하게 된다.

포덕은 전경을 바탕으로 하여 상제님의 대순하신 광구천하의 진리로 구제창생키 위한 대인접촉이다.<sup>39)</sup>

## (2) 교화의 정의

교화가 지니고 있는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전경』에서 교화와 관련한 내용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자.

...당요(唐堯)가 일월의 법을 알아내어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치가 비로소 인류에게 주어졌나니라” 하셨도다....<sup>40)</sup>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갈래로 되리라.<sup>41)</sup>

위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 보면 교화는 옛부터 요·순과 같은 성인(聖人)이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고 참다운 방법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한 치세(治世)의 중요한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39) 『대순지침』, 21쪽

40) 『典經』, 교운 1장 30절

41) 『典經』, 교법 3장 26절

이외에도 교화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또다른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상제께서는 교화를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이치에 따라 교화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과 의미를 후천선경에 재현시키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시반본의 원리에 의해 후천에서는 위의 『전경』 예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치와 교화가 일치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들을 법리에 맞게 다스릴 수 있는<sup>42)</sup>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성대의 기반을 마련하시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아래의 『전경』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류찬명이 어느날 상제를 모시고 있을 때 상제로부터 요·순(堯舜)의 도가 다시 나타나리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하는도다.<sup>43)</sup>

위의 내용처럼 요·순의 도가 다시 출현된다는 것은 정치와 교화가 일치되어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요·순시대가 재현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태평성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교의 일치가 무엇보다 우선되는 원리인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교화의 본질은 단순히 진리만을 전달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닌 백성을 바르게 제도하는 궁극적인 방법이며, 그를 통해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정자(爲政者)가 훌륭한 인격과 덕을 갖추어 성인정치(聖人政治)를 실현시키려고 해도 백성들의 자질이 둔박하여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다면 성인정치의 실현은 한계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하는수 없이 위무와 형벌로써 백성을 다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화로써 백성들을 지혜롭고 선하게 하는 과정이 전제될 때 위무와 형벌이 없는 태평성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제께서는 성인정치가 실현되었던 요·순시대를 원시반본의 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후천선경에 재현(再現)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상제님의 의지를 파악한다면, 현실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42) 『典經』, 예시 80절

43) 『典經』, 교운 1장 46절

노력은 장차 세계의 민생을 건지는데 필요한 자세를 갖추는 일인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진다. 아래의 『전경』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장차 천하 만국을 주유하며 중생을 가르칠 때 그 영화는 비길데가 없으리라.<sup>44)</sup>

이러한 사실을 이해한다면 올바른 교화를 실현할 수 있는 노력을 탐구해야 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앞의 예문과 관련하여 살펴 본다면 그것은 성·웅을 겸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up>45)</sup>

먼저 성·웅을 음양적(陰陽的) 시각에서 이해하면 성(聖)은 음(陰)에 해당하며, 웅(雄)은 양(陽)에 해당되는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성·웅을 겸비하는 일은 음양합덕(陰陽合德)한 인간상을 이루는 일이며, 이러한 선행조건이 만족될 때 현실속에서 바른 교화자로서의 역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마음은 성인을 바탕으로 하고 일은 영웅의 도락을 취하라」는 상제님의 말씀은 대단히 의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후천의 미래세계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의 단면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올바른 교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은 결과적으로 교화가 포덕과 관련하여 수도의 근간이 됨을 확인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후천세계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을 교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수련(修練)케 됨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화는 단순히 진리를 전달하는 기능적인 특성 이외에도 수도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올바른 교화의 실천을 위해 『대순지침』에 명시된 교화의 의미를 통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교화는 입도한 도인에게 밝은 재활(再活)이 불역(不易)의 천운구인(天運

44) 『典經』, 예시 82절

45) 이와 관련하여 『典經』에서 성·웅을 겸비하라는 상제님의 가르침이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교운 1장 49절, 교법, 2장 3장 26절에서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救人)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을 자인 자각케 하는 것이다.<sup>46)</sup>

위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교화는 단순히 포덕하는 과정에서 도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 만이 아닌 포덕의 과정이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입도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교화를 해야할 사명감을 지니는 종교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끊임없이 상제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려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하게 하는 자인(自認)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그를 통해 자각(自覺)을 얻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교화는 예문에서 언명(言明)된 것처럼 상제께서 창생(蒼生)을 구제하시기 위해 9년간 행하신 천지공사의 결과로 영원한 불역(不易)의 무극대운(無極大運)이 후천선경을 통해 나타나는 것임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순지침』에서는 그것을 하늘의 운(運)이 인간을 구하는 시대를 통해 창생이 다시 살수 있는 영원한 선경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자인 자각케하는 것이라고 간명(簡明)하게 설명하고 계신다.

### 3. 포덕 · 교화의 목적

#### (1) 포덕의 목적

이 장에서는 포덕의 구체적 목적을 살피기 위해 『전경』과 『대순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밝혀볼 것이다.

『전경』과 『대순지침』에서는 포덕의 목적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 하루는 김 형렬에게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혁하고 후천선경(後天仙境)을 열고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sup>47)</sup>

46) 『대순지침』, 22쪽

47) 『典經』, 예시 17절

이러한 『전경』의 내용을 참조해 보면 포덕의 목적은 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즉 상제께서 행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를 통해 무극대운(無極大運)<sup>48)</sup>이 도래함을 미리 알리고 그것에 동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해원상생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그것의 구체적 내용은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는 순결한 마음을 갖추게 하는데 있다. 그리고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것처럼 포덕은 해원상생의 마음을 갖추어 천지공정에 참여하는 성스러운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포덕이라는 종교적 활동을 통해 인간은 천지공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환경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뒤의 포덕의 의의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대순지침』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그것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포덕은 해원상생·보은상생<sup>49)</sup>의 양 원리인 대도의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다.<sup>50)</sup>

48) 무극대운(無極大運)과 관련하여 『典經』, 교운 2장 18절에서는 그것을 해원상생의 진리와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그것을 살펴보면

…도주께서 통사동(通士洞) 재실에서 어느날 「오도자 금불문 고불문지도야(吾道者 今不聞古不聞之道也)라 믿고 닦기가 어려우니라」 하시고 다시 추종하는 여러 사람들을 앞에 모으고 무극대운(無極大運)의 해원상생 대도(解冤相生大道)의 진리를 설법하시어 도(道)를 밝혀주셨도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하여 필자는 무극대운을 해원상생의 대도를 통해 나타나는 영원한 후천의 상생운로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영원한 상생의 운로가 무극대운이라면 그것을 가능케하기 위해서 해원이 전제되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49) 이와 관련하여 『대순지침』, 27쪽에서는 해원(解冤)은 척(慼)을 푸는 일이며 척을 맺는 것도 나요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풀므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니, 양편이 척이 풀려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해원상생·보은상생은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남을 잘되게 하라”는 진리이니, 화합·단결·상부상조를 강조하고 그것을 실천토록 교화하라. 『대순지침』, 위와 같은 쪽.

내 경위만 옳고 남의 주장을 무시하는데서 반발을 일으켜 서로 미워하다가 마침내 원한을 품어 척을 맺는 법이다. 『대순지침』, 위와 같은 쪽

50) 『대순지침』, 19쪽

포덕의 목적과 관련하여 위의 예문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해원상생과 보은상생(報恩相生)이라는 내용이다. 그것은 원리이며, 대도의 이치를 밝혀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포덕이 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를 알리고 선경세계에 동참하는 것을 일러 주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면 마땅히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은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반드시 이해하고 알려야 할 중요한 명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의미를 『포덕 교화기본원리』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 그 실천적 의미를 탐구하여 보려고 한다.

『포덕교화기본원리』에서는 해원상생·보은상생의 법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제께서는 광구(匡救)천하·광제(廣濟)창생의 대의(大義)로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의 대순진리를 종교적 법리로 화민정세(化民靖世)하여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사회화합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를 이룩하시려고 인세(人世)에 대강(大降)하사 전대미증유(前代未曾有)의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시며 이에 수반(隨伴)된 삼계공사(三界公事)를 행하셨는데 우리는 무엇보다 여기에서 종교적 법리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깨달아 나가야 된다. 이 본질적인 법리를 모르고 보면 포덕천하(布德天下)의 대의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相克)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冤恨)이 쌓이고 맺혀 삼계(三界)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災禍)가 일어나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度數)를 정리하고神明(神明)을 조화(調化)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 후천의 선경(仙境)을 세워 세계의 민생(民生)을 건지려 하노라」(공사 1-3)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선천세계(先天世界)의 가장 근본적인 참화의 원인이 상극(相克)의 이치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한데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원인적인 모순(矛盾)의 상극지리를 해소하고 상생의 도로써 선경(仙境)을 열으신다고 선포하신 것으로 보아 삼계공사(三界公事)를 행하신 가장 큰 종교적 법리(法理)는 상생의 도(道)

곧 상생의 도(道)의 법리(法理)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천 세계에는 모든 사물이 도의(道義)에 어그러지고 원한이 맺히고 쌓여 그것이 마침내 삼계의 재앙으로 가득차 진멸의 위기에 처한 세계를 뜯어고치는 공사의 처방이 바로 상생의 법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상생법리(相生法理)는 남 잘되게 하는 것이 곧 나도 잘 되는 길임을 자각(自覺)케 하신 협동의 원리이기 때문에 공존공영의 평화의 윤리(倫理)라 할 수 있다.

이 상생의 도의 오묘(奧妙)한 진리를 다 표현키 어려우나 대략 크게 나누어 보면 해원상생(解冤相生)과 보은상생(報恩相生)으로 구분된다.

라고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중요성과 의미를 역설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포덕교화기본원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의미를 통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1. 해원상생(解冤相生)

선천 수만년 동안 상극(相克)이 인간 사물을 지배하여 모든 인사(人事)가 도의(道義)에 어긋나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쳐서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켜 드디어 세상을 폭파할 지경에 이르러 상제께서 삼계공사(三界公事)를 행하시 극(極)에 달한 신계(神界)와 인계(人界)의 원한을 풀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원한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법리(改造)를 마련하여 인간을 개조(改造)하여서 세상을 화평되게 섭리하셨다.

여기서 해원상생(解冤相生)의 대의(大義)를 좀 더 부연하면 인간은 자기 도량에 따른 기획의 설계가 의욕(意慾)의 발동이다. 그 의욕의 발동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즉 기획과 설계의 행동이 의욕의 발동인데 이 인간의 의욕이란 제한이 없어서 허영과 야망으로 넘쳐 허황된 꿈으로 사라지기 쉽다. 이와 같이 허황된 꿈으로 화하면 드디어 실망과 후회는 물론 자기도 남도 원망하게 되어 한을 품게 되는 것이다.

인생의 생사존망(生死存亡)에는 협동도덕이 기본이 되어 있으므로 무엇보다 인간의 의욕(意慾) 발동을 반성하고 조정하여 수심연성(修心煉性)으로 허

영과 야망을 경계하고 분수에 합당케 하여 후회없이 하는 것이 해원(解冤)의 묘사(妙事)이다. 즉 서로가 분수를 망각하고 허영과 야망으로만 일관(一貫)하게 되면 급기야는 피해를 입게 되어 원망이란 적이 생겨 풀지 못할 원한을 맺게 된다. 남을 미워하거나 남에게 해독(害毒)을 끼치거나, 언덕을 베 풀지 않는 것등이 모두 척을 짓는 행위가 된다.

상제께서 속담에 「무척 잘산다」 이르나니 척(慼)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다. 남에게 원억(冤抑)을 짓지 말라 척이 되어 갚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신명이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 등등의 말씀은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윤리(倫理)를 생활화(生活化)하여 실천토록 하신 것이다. 따라서 상제께서는 이와 같은 해원상생의 윤리를 천하만민으로 하여금 생활화하여 실천케 해서 온 세계가 상생(相生)의 화평세계(和平世界)를 건설토록 하셨다.

## 2. 보은상생(報恩相生)

나 라는 존립(存立)을 생각해보면 사람은 무한한 시간과 공간속에서 은혜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 일거일동(一舉一動)에 지은필보(知恩必報)하려는 마음이 생함을 느끼게 된다. 사람은 부모의 혈육을 받아 세상에 태어나 부모의 자애(慈愛)와 형제 친척의 도움을 받고 나아가 이웃과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국가의 보호와 사회의 신의를 받아 비로소 사람된 도리를 다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은 출생으로부터 은의(恩誼)어린 사회를 떠나서 삶을 영위(營爲)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은 은의(恩誼)의 인과(因果)에서 삶의 근원을 깨닫고 내가 그로 인하여 자랐으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원천을 살피어 사람이면 마땅히 그러한 은혜를 알아야 하며 그러한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보답해야 된다는 보은(報恩)의 인생관을 수립하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는 어떠한가.

상제께서는 「선천에서는 모든 인사(人事)가 도의(道義)에 어그러져 인류의 질서가 무너지고 마침내 망기군자무도(忘其君子無道) 망기부자무도(忘其父子無道) 망기사자무도(忘其師者無道) 세무충(世無忠) 세무효(世無孝) 세무렬(世



無烈) 시고천하개병(是故天下皆病)」이라고 진단하셨다. 또 상제께서는 배은망덕(背恩忘德)은 신도(神道)에서 허락치 않는다 하시고 선령신(仙靈神)을 부인 하거나 박대해서는 안된다. 하시고 자손을 둔 신은 황천신(黃天神)이니 하늘로 부터 자손을 타내리고 자손을 두지 못한 신은 중천신(中天神)이니라, 하시고 또 모든 선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육십년동안 공을 들여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태어난 몸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헛되이 보낼 수 있으라 하셨다. 이와 같은 말씀은 사람이 선령의 음덕으로 부모의 혈육을 받아 세상에 출생한 소중함과 또한 생(生)이 비롯됨이 신계(神界) 곧 하늘에서 기인된 존귀함을 자각케하여 보은 법리를 일깨워 주셨다.

여기서 보은상생(報恩相生)의 대의를 좀 더 부연해 보면 생(生)과 수명(壽命)과 복록(福祿)은 천지의 대은(大恩)이니 성·경·신(誠敬信)으로서 하늘의 은혜에 보답하고 존재(存在) 지위(地位) 가치(價値)가 유지되는 것은 사회의 대은(大恩)이니 사회공동복지(社會共同福祉)를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강령(康寧)과 번영(繁榮)은 국가의 대은(大恩)이니 성충(誠忠)을 다하여 헌신봉공하고 성장양육(生長養育)은 부모의 대은이니 효성으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교양육성(教養育成)은 스승의 대은이니 익혀 받은 학식으로 국가 사회에 헌신봉사하고 생활(生活)의 풍성(豐盛)은 직업의 대은이니 충실근면으로 직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만은(萬恩)의 육대강령(六大綱領)에 대한 보은을 생활화(生活化)하여 보은상생(報恩相生)의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천하개병(天下皆病)의 세상은 치유되는 것이다.<sup>51)</sup>

라고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포덕은 해원·보은상생의 진리를 이해시키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면서 그것을 통해 어그러진 상도(常道)를 바로 잡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대순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포덕은 인도(人道)를 선도하여 윤리도덕의 상도(常道)를 바로 이룩하는 것이다.<sup>52)</sup>

51) 대순진리회 교무부, 『布德教化基本原理』(其二), 5~10쪽.

52) 『대순지침』, 19쪽

포덕은 덕을 편다는 말이니 겸허(謙虛)와 지혜의 덕으로 사(私)로 인하여 공(公)을 해치지 말고 보은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sup>53)</sup>

라고 포덕이 지니는 목적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포덕이 지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상선경이 상제님의 법리에 의해 도래함을 알려 참여케하여 복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 이것은 참으로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길을 열어주고 실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와 관련한 또다른 의미를 다음의 예문에서 살펴 보자.

포덕이란 상제님께서 광구천하(匡救天下)와 광제창생 하시려고 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널리 알려 지상낙원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sup>54)</sup>

포덕에서, 우주를 주재하신 권능의 주인으로서 상제의 무량(無量)하신 덕화와 무변(無邊)하신 권지의 소유주(所有主)이심을 널리 알려져야 한다.<sup>55)</sup>

위의 예문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포덕을 통해 복을 받는 일이 가능함을 확신케 하는 것은 우주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의 권능과 법리에 의해 그것이 이루어 짐을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포덕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의미와 내용의 전달이 우선 되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후천선경에 관한 이해의 기초와 그것에 관한 믿음은 상제님의 권능이 이해될 때 나타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신앙이 전제될 때 상제님의 덕화<sup>56)</sup>를 진실로 알릴 수

53) 「대순지침」, 위와 같은 쪽

54) 「대순지침」, 21쪽

55) 「대순지침」, 위와 같은 쪽

56) 「대순지침」, 65~66쪽에서 덕화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조직체계를 굳건히 하고 질서를 보호하는 매체(媒體)가 되므로 덕화 선양에 도인들은 각별히 힘을 모아야 한다. 덕화는 도의 진리(중지·신조·목적)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 한 데서 손실되고, 덕화 손실은 조직 질서를 깨뜨리느니라. 덕화는 임원과 수반 상호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서 체계의 질서를 유지하게 됨을 명심하라. 임원과 수반의 상호 질서도 덕화로 이룩되니 성실한 마음으로써 포덕·교화하는 것이 중단의 질서유지에 중요함을 모든 도인들은 각별히 유의하라. 상급 임원들은 중간 임원들과 수반들과의 사이에 벌어질 수도 있는 장벽이 서로가 상통하는 문답으로써 무너질 것이고, 이로써 체계는 바로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있는 것이며, 그것은 포덕에서 전달되어야만 하는 포덕의 또다른 목적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한 사실을 『대순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

포덕은 덕화의 선양이기 때문에 덕화에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sup>57)</sup>

결론적으로 포덕의 목적을 정리해 본다면 그것은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우선됨을 이해하게 된다.

해원상생(解冤相生)은 원을 풀고 서로 잘 살게 한다는 의미이며, 보은상생(報恩相生)은 은혜를 갚아 서로 잘 살게 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에서 얻을 수 있는 일차적 내용은 양자가 상생(相生)을 이루는 원리라는 것이다.

이처럼 상제께서는 상생의 후천선경을 건설하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방법으로 해원과 보은의 양대 원리를 통해 그것을 천지공사를 통해 펼쳐나가셨으며, 천지공사에서도 양대원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작용되었다.<sup>58)</sup>

그런데, 그간 쌓이고 맺혔던 원을 풀어야만 서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쉬운 일인 것이나, 보은을 통해서 상생을 이룬다는 것은 대순진리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그것의 이해를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 『전경』에 나타난 예문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자.

또 말씀하시기를 「신농씨(神農氏)가 농사와 의약을 천하에 펼쳤으며 세상 사람들은 그 공덕을 모르고 매약에 신농유업(神農遺業)이라고만 써 붙이고 강태공(姜太公)이 부국강병의 술법을 천하에 내어놓아 그 덕으로 대업을 이룬 자가 있되 그 공덕을 양모하나 보답하지 않고 다만 디덜방야에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강태공 조작(庚申年庚申月庚申日姜太公造

57) 『대순지침』, 22쪽

58) 이와 관련하여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眞理會要覽』, (1969) 8쪽 취지(趣旨)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대도(大道)의 진리(眞理)로써 신인의도(神人依導)의 이법(理法)으로 해원(解冤)을 위주(爲主)로 하여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보은(報恩)으로 종결(終結)하시니 해원(解冤) 보은(報恩) 양원리(兩原理)인 도리(道理)로 만고(萬古)에 쌓였던 모든 원울(冤鬱)이 풀리고 세계가 상극이 없는 도화낙원으로 이루어 지리니...」라는 내용에서 그것은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作)이라 써 붙일 뿐이니 어찌 도리에 합당하리요. 이제 해원의 때를 당하여 모든 신명이 신농과 태공의 은혜를 보답하리라」고 하셨도다.<sup>59)</sup>

진묵(震默)은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김봉곡(金鳳谷)에게 참혹하게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계발에 역사 하였으나 진묵을 해원시키고 고국으로 초혼(招魂)하여 선경건설에 역사케 하셨다.<sup>60)</sup>

먼저 위에 나타난 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신농과 강태공 그리고 진묵의 예를 들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신농과 강태공 그리고 진묵은 인류를 위해 여러 가지 유익한 발견과 발명을 통해 이로움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칭송하여 은혜에 보답하는 이가 없어 타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으므로 상제께서는 그것을 도리에 합당치 않다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두면 분명 원을 낳고 쌓이게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것을 해소하시기 위해 해원시대를 마련하시어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갖추게 하여 원을 풀고 상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신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서로가 원을 푸는 해원의 과정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일차적으로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속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항상 원한발생의 요인은 잠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원적인 해원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 상생을 영원토록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만일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배은망덕한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을 미워하다가 마침내 원한이 생겨나게 되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우주의 군생만물이 각기 보은(報恩)

59) 『典經』, 예시 22절

60) 『典經』, 권지 2장 37절

할 수 있는 태도나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주가 영원한 상생의 운로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은상생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보은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원적 바탕을 마련하고 그것이 실천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나 환경을 만든다면 상생이라는 결과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한 예를 『전경』을 통해 찾아보자

... 「중국은 예로부터 우리의 조공을 받아 왔으므로 이제 보은신은 우리에게 쫓아와서 영원한 복록을 주리니 소중화(小中華)가 곧 대중화(大中華)가 되리라」 일러주셨도다.<sup>61)</sup>

이처럼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것에 보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화평세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보은상생은 세계의 질서를 바르게 하고 상생을 유지시키는 근간임을 이해하게 되는데 『전경』에서 그와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면

상제께서 요(堯)의 역상일월경수인시(曆像日月星辰敬授人時)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일월이 아니면 빈 껍데기요. 일월은 지인(知人)이 아니면 허영(虛影)이요. 당요(唐堯)가 일월의 법을 알아내어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치가 비로소 인류에게 주어졌나니라” 하셨도다. 이때 상제께서 일월무사치만물(日月無私治萬物) 강산유도수백행(江山有道受百<sup>62)</sup>

라는 예문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천·지·인 삼계는 서로 공존(共存)해야만 하는 것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 은혜(恩惠)스러운 존재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는 상하(上下)나 우열(優劣)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서로가 공존할 때 각자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인정받게 되며 또한 그것이 발현되어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이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쳤으므로 백성은 비로소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가르치신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가 근간이 되어

61) 『典經』, 공사 3장 19절

62) 『典經』, 교운 1장 30절

요순시대에는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은의 원리는 인류와 우주가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장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포덕에서 그것이 실천될 때 상제께서 이룩하신 후천선경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후천선경은 앞서 누누이 언급된 것처럼 상극(相克)이나 원율이 없는 화평한 상생의 도화낙원이므로 상생의 실천과 그것의 조건 마련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덕에서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원리나 이치가 실천되고 실현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포덕과 교화를 통해 해원과 보은상생의 원리가 실천되고 그것이 발휘될 때 수도인은 앞서 언급한 도통을 이룰 수 있는 것이면서 도통은 대순진리에서 음양합덕과 신인조화의 원리에 따른 결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에도 보은상생의 원리가 적용됨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전경』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과 같이 신명을 잘 대접하는 곳이 이 세상에 없도다. 신명들이 그 은혜를 갚고자 제각기 소원에 따라 부족함 없이 받들어 줄 것이므로. 도인들은 천하사에만 아무 꺼리낌 없이 종사하게 되리라.<sup>63)</sup>

이처럼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원리는 포덕에서도 중요한 실천원리로 나타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으로 상제께서 짜 놓으신 후천선경에 동참하는 길을 일러 줌으로써 그를 통해 해원을 이루고<sup>64)</sup> 포덕의 과정을 통해 야망과 허영을 버리는 수심연성을 이루어 궁극적인 해원의 방법을 찾아 스스로가 원한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전도자와 입도자는 보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므로<sup>65)</sup> 이를 잘 실

63) 『典經』, 교법 3장 22절

64)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典經』, 교운 2장 41절의 포유문(布喻文)의 내용 안에는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難求之欲虛過一世之冤至于斯而豈不解冤哉喜吾道友屬哉勉哉 (구하고자 하였으나 어려워 일생을 헛되이 보낸 그 원을 여기에 이르러 어찌 해원하지 못하리오 기뻐하라 나의 도우들이여 힘쓰고 힘쓸지어다) 라는 내용을 주목할 때 후천세계의 동참이 해원의 궁극적 방법임을 밝히고 있다.

65) 『대순지침』, 66~67쪽의 내용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천한다면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원리는 포덕을 통해 저절로 그 의미가 실천되며, 체득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포덕의 참다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대순지침』에서는 전도자의 은의를 영수불망하여야 한다<sup>66)</sup>는 당위성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천될 때 해원과 보은의 양 원리가 공존하게 되어 영원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처럼 포덕은 상제께서 정하신 천지공사의 원리에 따르는 실천 행위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며, 상제님의 참다운 의지와 이념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교화의 목적

앞의 내용에서 논의된 것처럼 포덕의 목적이 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와 9년간의 천지공사를 통해 후천선경이 도래함을 알리고 그 과정에서 해원·보은의 양대 원리를 바르게 이해시키고 실천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교화의 목적은 이러한 기본적 입장을 바르게 전달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앞의 내용에서 논의 하였으므로 『대순지침』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간명하게 살피고자 한다

기본 교리를 상대에게 알기 쉽도록 이해시켜 진리를 확신케 하는 일이다.<sup>67)</sup>

이처럼 교화의 목적은 근원적인 진리를 상대방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알리

하고 있다.

자모지정(慈母之情)과 은사지의(恩師之義)의 심정으로 통심정이 되게 힘써야 하며, 상제께서 “스승은 제자가 없으면 설곳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은의가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은의를 알고 그 은의에 보은하여야 하며 배은망덕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보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계신다. 만일 은의를 망각하고 혈기의 충동으로 대립하면 상극의 함정을 스스로 파는 것이 된다.고 배은을 경계하시면서 윗사람은 모자의 정과 애홀(愛恤)의 마음으로 아랫사람에게 대하고, 대화의 길을 터어서 수반 체계를 관리하라는 말씀을 통해 종단의 중요한 기본사업인 포덕사업에 관련한 지침을 천명하고 계신다.

66) 『대순지침』, 15쪽 참조

67) 『대순지침』, 44쪽

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진리를 확신케하여 바른 신앙의 자세와 수도를 하게 하는데 교화의 목적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4. 포덕 · 교화의 방법

### (1) 포덕의 방법

이 장에서는 포덕에서 꼭 지켜야할 방법적인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해원상생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는데 의미를 두었고, 그것을 『대순지침』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포덕은 진리만을 전하되 흑세무민할 소지를 삼가라.<sup>68)</sup>

모든 도인들은 믿음이 근본이니 믿음을 바르게 하도록 항상 배우고 전경의 말씀을 많이 읽도록 하라.<sup>69)</sup>

위에 나타난 내용을 참조하면 포덕의 방법에서 제시되어지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입장은 진리를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위에서 언명(言明)하고 있는 진리는 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이며, 나아가 상제님의 덕화를 참답게 알리는 것으로 필자는 해석하였다. 따라서 포덕에서 상제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참다운 진리가 전해질 때 그를 통해 흑세무민(惑世誣民)할 소지를 없애고 덕화를 널리 알리고 그것이 바르게 실천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대순지침』은 다음과 같이 경계하며 그 의미를 가르치고 계신다.

부당한 언사나 처사로 행동하여 덕화 손상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sup>70)</sup>

남의 비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포덕의 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sup>71)</sup>

---

68) 『대순지침』, 76쪽

69) 『대순지침』, 77쪽

70) 『대순지침』, 22쪽

71) 『대순지침』, 22-3쪽



포덕할 때에나 수반 도인들을 교화할 때에 자신이 책임을 지고 연원과 연운에 책임을 전가(轉嫁)하여 종단을 욕되게 하지 말라.<sup>72)</sup>

이처럼 포덕은 진리를 바르게 전달하는데 그 방법의 요체(要諦)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를 통해 참답게 덕화를 전달하고 덕화손상의 여지를 없애는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포덕의 올바른 방법과 실천은 당연 올바른 언사<sup>73)</sup>와 처신·처사<sup>74)</sup>와 행동<sup>75)</sup>을 갖추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수도자의 기본자세가 포덕을 통해 마련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면서 그것을 꾸준히 실천봉행하는 것이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근간이 되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대순지침』 다음과 같이 그것을 역설하고 계신다.

말재주 보다 행동과 처신으로써 상대를 감화시키는 자세를 가져라.<sup>76)</sup>

모든 사람들을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아껴서 마음으로 따르도록 하여 포덕하라.<sup>77)</sup>

이웃 주민들과의 상호 유대를 맺어 처신 처사를 올바르게 하여 신뢰를 받게 되면 이것 역시 포덕이다.<sup>78)</sup>

72) 『대순지침』, 78쪽

73) 언사와 관련하여 말은 마음의 소리다. 말을 좋게 하여 덕이 되게 하여야 한다. 말을 나쁘게 하면 그 여양(餘殃)이 나에게 미쳐 온다. 말은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그 의미를 『대순지침』, 46쪽에서 밝히고 있다.

74) 처사에 관해서 『대순지침』, 47쪽 에서는 말은 임무에 충실히 복무하고 지시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수행하는 것이 바른 처사이다. 자신은 실천하지 않고 수반들에게만 강요한다든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도리어 배신당하는 처사가 된다. 라고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75) 행동과 관련하여 『대순지침』, 47쪽에서는 전경에 “잘 가면 행(行)이 되고 못 가면 불행(不幸)이라” 하셨으니 깊이 명심하라. 행동은 마음의 자취다.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일거일동을 도리(道理)에 합당케 하여야 한다. 라고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76) 『대순지침』, 77쪽

77) 『대순지침』, 77쪽

78) 『대순지침』, 31쪽

## (2) 교화의 방법

교화의 방법에 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바른 해답이나 지침을 정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그 이유는 교화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환경조건에 따라 그 방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을 논의하는 일이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교화의 방법을 논의하는 일에 아무리 많은 난점(難點)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 논의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된 것처럼 포덕이 수레에 가득찬 보물을 전하는 것이라면 교화는 그것을 끄는 수레와 같은 것이고, 그것을 이끄는 사람의 운전능력(運轉能力)이나 방법에 따라 그것을 전하는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것의 방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장에서는 논의의 한계점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의 대체적인 개요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어 방법의 지침을 『대순지침』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화는 신앙심을 높이는 길잡이가 되므로 임기응변하지 말고 진실을 알려 전폭적으로 믿도록 하여야 한다.<sup>79)</sup>

임원들은 수반도인에 대한 교화를 인정이 넘치고, 신뢰가 감돌아 허세를 부리지 말고, 안색은 화기롭게 편안한 장소에서 안정한 시간을 택하여 부담이 없는 대화로써 신앙심을 높여 진리 도통의 진경에 이르도록 계도하는 것이다.<sup>80)</sup>

위의 예문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하면 교화의 방법에 적용되어야 공통적인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중 첫 번째의 방법은 교화를 통해 신앙심을 고취(高趣)시켜야 하며, 다른 하나는 신뢰감을 전하는데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교화의 방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신앙심과 신뢰

79) 『대순지침』, 45쪽

80) 『대순지침』, 위와 같은 쪽

감을 갖게하는 일이다. 또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진실을 전하고 허세를 부리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화를 행하는데 있어 자칫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허세로 비약하게 되고 그 결과 진실을 전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관한 이해에 좀더 적극적이며, 철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것을 『대순지침』에서는 체계(體系)와 도리(道理)를 갖추는 일로 설명된다. 따라서 체계와 도리를 갖추는 일은 교화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 논의 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요체(要諦)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올바른 교화의 방법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어야 할 체계와 도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체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인은 교화의 체계를 정함에 있어 『전경』을 그것의 근본바탕에 두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異意)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경을 중심으로 바른 교화의 체계를 세우고 성·경·신을 다한 노력을 통해 올바른 도리를 얻어 낼 수 있다면 교화의 바른 방법을 갖추는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실을 『대순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계신다.

대순진리는 전경(典經)을 근본으로 하여 참다운 도인이 되도록 교화하여야 한다.<sup>81)</sup>

우리의 도(道)가 신도(神道)라는 진리를 깨우쳐 줄 때에 체계 있는 말로 전하라.<sup>82)</sup>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교화의 구체적인 방법과 순서에 관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도성덕립은 성(誠)·경(敬)·신(信)에 있으니 예 참뜻을 순서있게 전하여 신앙심을 깊게 삼도록 하라.<sup>83)</sup>

81) 『대순지침』, 17쪽

82) 『대순지침』, 75쪽

83) 『대순지침』, 75쪽

이와 같이 성·경·신을 다하여 교화의 방법을 바르게 연구하고 실천할 때 도성덕립(道成德立)을 이루게 됨을 가르치고 계신다. 또한 도성덕립의 과정은 성·경·신의 올바른 뜻을 순서있게 전하는데 있다. 따라서 교화의 주제는 비단 교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수행에 관한 언급도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듯 교리체계와 그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실천체계에 관한 내용이 적절히 조화될 때 전인적(全人的)인 인간상을 이루게 되어 도성덕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러한 결과는 상제님에 관한 신앙으로 연결되어 참다운 수도인의 자세를 갖추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교화가 지니는 중대성을 인식한다면 수도인들과 종단의 조직체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노력과 탐구정신이 요청된다. 그 이유는 교화를 체계있는 말로 전하고 도리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명하고 통일된 교리체계가 필요한 것이므로 교리연구에 관한 노력이 증대되어야 함은 당연한 인식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대순지침』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계신다.

교무부는 교리연구를 담당하여야 한다.<sup>84)</sup>

교감은 방면의 포덕·교화에서 일어날 사고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힘써야 한다.<sup>85)</sup>

실력은 힘이 되니 먼저 상급 임원은 주어진 기량 위에 실력을 길러, 그것을 중간 임원이나 수반들에게 전하도록 힘쓰라.<sup>86)</sup>

이렇듯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종단조직에서의 다각적인 방법들을 통해 포덕·교화의 참다운 의미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것을 전제로한 종교활동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대순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계신다.

84) 『대순지침』, 60쪽

85) 『대순지침』, 63쪽

86) 『대순지침』, 79~80쪽

임원은 수반 도인을 철저히 대순진리로 교화하고, 책임과 언행과 처신 등을 바르게 잡아 준 후에 포덕에 종사하게 함이 상책이니라.<sup>87)</sup>

## 5. 포덕 · 교화의 의의

### (1) 포덕의 의의

이 장에서는 포덕이 지니는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포덕이 지니는 실천적 당위성을 살피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전경』과 『대순지침』에 나타난 내용에 근거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전경』에서는 포덕이 지니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제께서 하루는 김 형렬에게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선경(後天仙境)을 열고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sup>88)</sup>

위의 내용은 포덕이 지니는 구체적인 의의를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포덕의 의의는 해원상생의 실천과 함께 천지공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전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 研無人無天地 故天地生人 用人 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sup>89)</sup>

이처럼 포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의의는 앞의 내용처럼 천지공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천지공정에 인간이 참여해야만 하는 궁극적 이유는 인간이 천지

87) 『대순지침』, 77쪽

88) 『典經』, 예시 17절

89) 『典經』, 교법 3장 47절

“그런 까닭으로 사람이 없으면 하늘과 땅도 없다. 고로 하늘과 땅은 사람을 낳고 쓴다. 인생에 있어서 하늘과 땅이 사람을 쓰는 시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찌 인생이라 하리요”.

이것은 필자의 해석이므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와 대등함을 지니는 존재라는데 있다.

이러한 인간 존재의 근원적 위치와 의의는 포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그것이 발휘되게 된다. 따라서 천지공정에 참여한다는 성스러움은 포덕이라는 종교행위를 통해 구체화되며, 동시에 그것은 인간의 가치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천지가 인간을 낳고 쓴다”는 예문의 내용을 상기할 때 천지에 보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천지와 영원히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경』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도통천지보은(道通天地報恩)<sup>90)</sup>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앞서 포덕이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것이 수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 수도의 목적인 도통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수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도통을 실현시켰을 때 비로소 인간은 천지와 군생만물에 보은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제께서는 후천오만년 선경을 열어나가기 위한 천지공사를 행하심과 동시에 인간의 참여를 강조하고 계신다. 이는 상제께서 짜 놓으신 천지공사에 인간이 포덕이라는 구체적 실천을 통해 참여할 때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유를 아래의 예문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해원상생 대도의 참뜻을 전하는 것이 포덕이며, 포덕천하(布德天下)가 되어야 광제창생이 되는 것이다.<sup>91)</sup>

또한 포덕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또다른 특징과 의의는 입도자와 선도자라는 상종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계에서는 보은상생의 강한 실천을 요구한다. 따라서 보은상생의 실천이 해원상생의 실현이라면 포덕이야말로 우리들이 현실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해원상생 실천방안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상세하게 밝

90) 『典經』, 예시 88절

91) 『대순지침』, 21쪽

하고 있다.

연원을 따라 입도 후 선도자(先導者)와 연운(緣運)의 상종(相從) 관계가 성립된다. (도헌 제13조)<sup>92)</sup>

전도인(傳道人)의 은의를 영수불망(永受不忘)하여야 한다.  
(도헌 제 14조)<sup>93)</sup>

이처럼 포덕은 해원상생의 참뜻을 실천하는 것이며, 해원상생이 확대되고 그 의미가 바르게 실천될 때 포덕천하를 이루어 창생을 널리 구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원상생의 실천은 포덕을 통해 가장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의 실현을 통해 도의 목적이 실현됨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은 또한 구천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으로 이어내려오는 신앙체계와 진리체계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며, 그러한 가르침의 올바른 실천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원체계(淵源體系)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입도자와 선도자와의 상종관계는 연원에서 연운(緣運)으로 나타나 무한히 펼쳐지게 됨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바다의 근원이 조그마한 웅덩이에 기원(基源)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한함을 가능케 하는 이유를 우리는 연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궁극적으로 보은적 태도로 표상(表象)되는 것이다. 또한 연원과 연운체계에 대한 보은적 태도는 포덕의 기본정신이며, 입장인 것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상생을 위한 집단정신이 연결되고 확산되어 나타날 때 비로소 선천세계의 한계를 벗어나 상제님의 이념과 이상이 실현되는 지상천국을 이루는 기초를 실현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덕은 상제님의 광구천하의 큰 뜻을 이루는 대업이며, 수도인의 소명인 것이다. 또한 포덕이라는 과정을 통해 연운관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연운체계는 선도자(전도인=선각)와 그를 통해 입도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종단체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92) 『대순지침』, 15쪽

93) 『대순지침』, 위와 같은 쪽

## (2) 교화의 의의

이 장에서는 교화가 지니는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교화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순지침』에서 교화의 의의를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 보도록 하자.

교화로써 도를 심심화(心沈化)하고 수훈(垂訓)의 진법(眞法)을 행동 실천하여야 수도자의 입문이 될 것이다.<sup>94)</sup>

위에 나타난 가르침을 분석하여 정리해 보면 교화가 지니는 의의는 상제님의 진리(道)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여 상제님에 관한 신앙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것(心沈化)이며, 상제께서 내려주시어 가르치신(垂訓) 참다운 법(眞法)을 행동으로 실천케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교화의 과정을 통해 수도자의 입문을 마련하게 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교화는 수도자가 도에 입문하게 되는 기초적인 과정→수행의 과정→수행의 결과→신앙체계의 정립에 이르는 수도의 총체적인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활동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화의 과정은 마땅히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하고, 해원상생의 의의를 지니면서 실천될 때 바른교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6. 포덕 · 교화에 나타난 특징

포덕 · 교화는 신앙인들이 현실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되어야할 당위성을 지닌 종교적 활동임을 우리는 앞장의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성을 지닌 환경과 그 속에 살고 있는 대상을 통해 우리는 포덕 · 교화를 실천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며, 나아가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나 입장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도 발생한다. 만일 그러한 경우 그것에 관한 입장이나 해석이 분명치 않게 된다면 우리는 곤장 혼란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한 혼란함 속에서 발생할

94) 『대순지침』, 22쪽



수 있는 오류는 포덕·교화를 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포덕·교화에 담겨있는 이러한 특징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는 그러한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내용적 기준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이 장에서는 『전경』의 내용에서 오늘날 현실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포덕·교화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하고 유사한 상황을 찾아 그것을 현실적 내용과 비교하고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특징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포덕·교화에 관한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틀을 벗어던지고 좀더 구체적인 지혜와 용력을 마련하고 그것을 확장시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경』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자.

『전경』행록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제께서 펼치신 신이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진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상제님을 찾고 따르는 데서 우리는 포덕과 교화에 관련한 대순진리적 배경과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상제님의 포덕은 시작되었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몇 사람 또는 수십 명이 어떤 개인의 집에 모여서 상제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행록편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모임은 세 단계의 과정으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제님의 성예를 듣고 따른 종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제께서 광구천하의 공사에 착수하시기에 앞서 글방을 차리고 동리의 서동을 모아 가르치신 바 있는데 그 소문이 널리 퍼졌다. 이 때 상제님의 신성함과 성예에 관한 소문을 듣고 상제를 따르기 시작한 이가 김형렬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지혜를 보고 상제를 좇는 사람들은 그 욕구가 충족되면 대부분 떠나 버리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전경』의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치안은 상제의 예지에 감탄하여 상제를 따르게 되었다. 전주부중에 들어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황급하게 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집으로 곧 돌아와라고 상제께서 이르셨다. 그가 이상히 여겨 까닭을 묻는 도다, 상제

께서 “그대가 지금 혼사로 중매인을 찾아가나 그가 그대의 집에서 기다리고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중매인을 만나서 결정하지 않으면 그 일은 허사가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 사람이 매우 경탄하여 일러 주신대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 과연 중매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도다. 그 후 그 사람은 감복하여 상제를 뵈옵고 따르니라.<sup>95)</sup>

또한 상제님을 따르던 김병욱이 당파에 말려들었던 곤욕을 치루게 되었으나 그것을 상제께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처리하시어 조정의 체포령에서 벗어나게 되어 상제님을 추종하게 되었으며, 이런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전주 이서동에 사는 송대유란 사람의 동생은 상제께서 치병에 능하시다는 성예를 듣고 상제님을 추종했다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치병에 대한 성예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퍼져서 상제님을 찾는 사람들이 자연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상제님의 종도로 남은 것은 아니며, 수많은 성예에 대한 소문으로 자연히 상제님을 추종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종도의 수가 늘어나자 그 종도들이 사람을 선별하여 종도로 상제께 천거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종도들이 때때로 부자를 종도로 천거하면 상제께서 이것을 제일 괴로워 하시니라. 종도들이 천거한 부자가 찾아오면 상제께서 먼저 그 사람이 오는 길가의 주막에 가서서 그를 만나 횡설 수설하셔서 그가 스스로 물러가게 하셨도다. 종도들이 이 일을 항상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참에 그 연고를 여쭙니 가라사대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만큼 그자에게 살기가 붙어있느니라. 만일 그런 자를 문하에 둔다면 먼저 그 살기를 제거하여 그 앞길을 맑게 해주어야 할 터이니 그러자면 많은 시간이 낭비되어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오느니라. 그런 자 중에서도 나를 알아보고 굳이 따르겠다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할 수 없이 허락할 뿐이니라」 하셨도다.<sup>96)</sup>

이렇게 천거된 종도의 수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상제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일련의 전제과정이 필요함을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상제님을 따르는 종도가 되려면 시련을 거쳐야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시련은 선천의 상

95) 『典經』, 교운 1장 11절

96) 『典經』, 행록 4장 48절

극적 습성에서 기인된 살기와 그로 부터 비롯되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제님을 추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기와 재앙을 깨끗이 씻고 그로 부터 맑은 앞길을 열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상당한 시간 만큼이나 시련을 겪고 그것을 견디어야만 하는 아픔이 따르됨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며, 그것을 통해 시련을 극복할 때 해원의 길이 열린다고 할 수 있다. 김경학의 예는 그러한 사실을 더욱 더 극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이후에 백암리에서 상제를 박공우와 신원일이 모시고 있었도다. 김경학의 천거로 김영학이 상제를 배알하였을 뿐 상제께서 이렛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도다. 영학이 매우 불만을 품기에 공우와 원일이 그에게 「그대가 상제께 삼가 사사하기를 청하면 빨리 가르쳐 주시리라」고 일러주니 그 때야 그는 사사하기를 청하니 상제로부터 승낙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상제께서 갑자기 그를 꾸중하시는 도다. 영학은 두렵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여 문밖으로 나가니라. 상제께서 영학을 불러들여 「너를 꾸짖는 것은 네 몸에 있는 두 척신을 물리쳐 내려하는 것이니 과히 불만을 사지 말라」고 타이르셨도다. 영학이 무슨 척이니까. 깨닫지 못하겠나이다」고 되물은 즉 「너는 열 여덟살 때 살인하고 금년에도 또 살인하였나니 잘 생각하여 보라」고 회상을 촉구하시니 그는 옛일을 더듬었도다. 「그 나이 때에 제가 남원에서 전주 아전과 말다툼하다가 그의 무례한 말에 분격하여 그에게 화로를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혔는데 이것으로써 신음하다가 그 이듬해 삼월에 죽었도다. 또 금년 봄에 장성 다동에서 사는 외숙인 김요선이 의병으로부터 약탈을 당하여 의병대장 김영백을 장성 백양사로 찾아가서 그 비행을 꾸짖으니 그 대장은 외숙에게 사과하고 그 의병을 찾아 총살하였도다.」 영학이 이 두 사실을 아뢰었도다.97)

이러한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상제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을 일차적으로 깨닫고 그것에 대한 고백(告白)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종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그러한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의 내용에서도 논의된 것처럼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을 성·경·신을 다하여 실천하는 것이 수도이며, 포덕·교화의 요체라고 할 때 그러한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척을 멀리하고

97) 「典經」, 행록 4장 47절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그것을 개조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그것의 이해와 고백을 상제께서는 촉구하고 계심을 알게 된다. 그런데 그것과는 좀 더 다른 경우가 있는게 그것은 종도 차경석과 관련한 내용에서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위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것에 대한 포기를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석이 그 물방앗집에서 열흘 동안 묵으면서 상제께 정읍으로 가시기를 간청하였으되 상제께서 응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노하고 때로는 능욕하시기도 하고 구축도 하여 보셨느니라. 그래도 경석은 끝끝내 떠나지 아니하므로 상제께서는 「그럼 내가 나를 꼭 따르려거든 모든 일을 전폐하고 내가 하라는 일에만 진력하여야 할지니 너의 집에 가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유월 초하루에 다시 이곳으로 오라. 그러면 함께 가리라」고 이르시니 그는 곧 돌아가서 가사를 대략 정리하고 그 날짜에 용암리에 다시 와서 상제께 배알하고 정읍으로 가시기를 또 청하는 도다. 상제께서 불응하시다가 사흘 후에 허락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이 잠기는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헤엄쳐서 겨우 발목이 닿는 물에 이르렀는데 이제 다시 깊은 물로 끌어들이려 하는도다」고 하셨도다.<sup>98)</sup>

이러한 두 가지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상제께서는 입도 하려는 사람에게 먼저 인내와 시련을 시험하셨다. 인내는 본래적자아(本來的自我)가 아닌 일상적자아(日常的自我)의 포기를 의미하며, 그것은 지금까지 인습화된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나쁜 생각을 버리고, 상제님을 영원히 모시겠다는 일념과 의지를 촉구한 것이다. 그를 통해 한가지 일에만 진력하는 일심을 불어넣으신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심이란, 입도 하려는 사람들이 시련을 통해서 증명해야 하는 과정인 것이며, 시련은 그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며, 그것이 이루어 질때 상제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가 형성됨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는 종도들의 집에서 가진 모임을 통해 포덕을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98) 『典經』, 행록 3장 38절

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천상제님의 성예에 대한 소문으로 입도자의 수와 종도들의 천거로 종도가 되는 수가 늘어나고, 그 중 열성을 다하는 종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종도의 집에서 설유(說諭)하시게 되었다. 예를 들면 상제께서 김형렬의 집에서 칠성을 숨기는 권지를 보여주시고, 그 후에 자주 들리시어 종도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셨다. 또 김보경의 집 외당에 계시면서 일심이 명부사자를 물리칠 수 있음을 가르치시기도 하셨다. 그리고 동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김기진의 집에 행차하시어 천지공사에 관한 말씀과 함께, 구리골에 약방을 차리신 후에는 동곡약방은 상제께서 거처하시는 일정한 처소가 되어 병마를 다스려 병자를 고치셨다.

신경수의 집에 두문동성수를 담당할 유사표의 운을 붙이시고, 천한 사람에게 먼저 교를 전하기 위해서 김경학 집을 대학교로, 차경석의 집에는 포정소를 두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전개될 교운에 대한 공사를 처결하시는 상징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또한 상제께서 무신년 유월에 대흥리에 계시면서 공우로 하여금 종도들을 각처에 찾아가서 순회케 하여 열 하루 동안 매일 새벽에 한 시간씩만 잠에 들도록 하시면서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차공숙을 뽑아 따로 너는 통제사가 되라. 일년 3백 60일을 맡았으니 돌아가서 삼백 육십 명을 구하라. 이것이 곧 팔괘를 맡기는 공사니라고 말씀하시고 포덕하도록 하셨다. 그 포덕의 방법은 오주(五呪)를 써서 한 사람에게 주어서 읽히시고 만 명에게 전하라고 다짐하시고 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는 방법이다. 포덕의 또다른 방법으로는

상제께서 무신년에 전주에 가서서 여러 종도들에게 글월을 정서하게 하시니라. 상제의 말씀에 따라 광찬은 김병욱의 집에 머물면서 상제께서 전하는 글을 일일이 동사하고, 형렬은 상제를 따라 용머리 주막에 가서 상제로부터 받은 글월을 광찬에게 전하느니라. 광찬은 그 글월을 정서하여 책을 성편하였도다. 상제의 명대로 책이 성편되니, 상제께서 광찬에게 세상에 나아가 그 글을 전함이 가하리라. ...」<sup>99)</sup>

99) 『典經』, 교운 1장 44절

그러나 이 성편된 책을 불사르게 하시어 문서 포교가 포덕에 실제로 감행되지는 않았지만 후에 도래할 교운과 관련한 공사를 펼치셨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종교적 수난은 매우 강한 인상을 갖게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경』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자.

경학의 형은 이상한 술객이 경학을 속여 가산을 탕패하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 한편으로는 경학을 만류하고자 또 한편으로는 그 술객을 관부에 고발하려는 심사에서 사람을 보낸 것이니라. 그리하여 경학이 집으로 돌아오는 중도에서 순검을 만나 함께 집에 오니라. 그리고 순검은 상제를 못 찾고 최 창조외의 집에 들어선 황 응종과 문 공신을 구타하였다.<sup>100)</sup>

또 하나의 종교적 수난은 소위 고부화란이라고 표현되는 종도들과 상제님이 함께 경찰서에서 고초를 겪으신 사건이다. 『전경』에서는 그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상제께서 형렬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자현과 함께 문공신의 집에 있되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 나는 신경수에게 가 있으리니 관리가 나의 거처를 묻거든 숨기지 말고 실토하라.」 좌중의 종도들이 영문을 모르고 이상히 여기는 도다. ...<sup>101)</sup>

상제께서 백의군왕 백의장군의 도수에 따라 화난이 닥칠 것을 종도들에게 알리셨는데, 정미년 12월 24일 밤 새벽에 백 순검이 올 것을 종도들에게 알리고 종도들은 순검 백명이 닥치리라 생각하고 흩어지는 종도들이 있었으나 태인 새을 백낙규의 형인 백순검이 새벽녘에 다녀갔다는 기록이 보이기도 한다.<sup>102)</sup>

이십 오일 밤중에 무장한 순검 수십 명이 갑자기 공신의 집을 포위하고 좌중에 있던 사람을 결박하고 상제의 거처를 묻기에 신 경수의 집에 계

100) 『典經』, 행록 5장 11절

101) 『典經』, 행록 3장 52절

102) 『典經』, 행록 3장 53절

시는 것을 말하니 순검들이 곧 달려갔도다. ... 상제를 비롯한 종도 이십 여명을 포박하였도다. 이튿날 상제와 종도들은 경무청에 압송되었나니 이것은 의병의 혐의를 받은 것이로되 백의장군 공사에 따른 화난이라고 훗날에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103)

이 날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가 냉혹하였도다. 「이것은 대공사를 처결한 까닭이노라」하시니라. 경무관이 여러 사람을 취조하여도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상제를 광인으로 취급하여 옥중에 남기고 정월 십일에 옥문을 열어 여러 사람을 석방하였도다.104)

출옥한 종도들은 제각기 집에 돌아갔으나 경석은 고부에 와서 상제의 출옥을 이월 사일 경칩일 까지 기다려 상제를 맞이하여 객방리 본덕으로 모시고 형렬은 상제께서 출옥하심을 듣고 그제야 안심하고 동곡으로 돌아갔도다.105)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시사하는바가 매우 큰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고생이 있을 때마다 상제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지금은 고생이 있을 지라도 내가 단식하여 식욕을 붙여주고 여름에는 겹옷을, 겨울에는 홑옷을 입어 뒷날 빈궁에 빠진 중생으로 하여금 옷을 얻게 함이니 고생을 참을지어다. 장차 천하만국을 주유하며 중생을 가르칠 때 그 영화는 비길 데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닥쳐올 영광으로 현재의 고생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전경』상의 기록은 구천상제님께서 처결하신 공사의 의미로써 중요한 의미가 부가되어야 하는 종교적 수난의 형태를 띄고 있다.

또한 종단 조직에서의 포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천상제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천지공사를 마치고 화천하셨다. 그 후 상제께서 재세시에 『천하를 널리 구함에 있어서 판 안에 있는 법으로써가 아니라, 판 밖에서 새로운 법으로써 삼계의 공사를 하여야 완전하나라』고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법에 관해서는 『모든 허례는 묵은 하늘이 그릇되게 꾸민 것이니 앞으로 진법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마음을 바로 하고 마음 닦기를 힘

103) 「典經」, 행록 3장 55절

104) 「典經」, 행록 3장 63절

105) 「典經」, 행록 3장 64절

쓸 것을 당부하셨다.

이러한 예시의 말씀대로 상제께서 화천하신 후에 직접 따르던 종도들이 앞을 다투어 가면서, 여기 저기서 종교적 활동을 하였는데, 15년 후 무극도(無極道)가 창도(創道)되고 태인도장이 마련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정읍 대흥리에 커다란 규모의 종교단체가 형성되었으나 이 단체에서는 구천상제님을 대월영시하지 않았으며, 구천상제님께서 호통치시며 경고하셨던 「천자국」 건설의 꿈을 버리지 못했었다. 이에 반해서 도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가 판 밖에서 포덕된 도인들이고, 도장의 영대에 대월영시의 대상이 될 구천상제님을 모셨다. 또한 조정산 도주께서는 판 밖에서 계시를 받으시고 구천상제님의 교운공사에 따라 계해년을 「이재신원(利在新元)」의 해로 정하고, 전교 하면서 집의 모임에서 보다 발전된 도장의 모임기구를 정립하여 포덕에 가장 중요한 신앙대상이신 구천상제를 「구천응원 뇌성보화 천존 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로 봉안함에 이르렀다. 아울러宗旨(宗旨)와 신조(信條)도 마련되니,宗旨는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진境)이며, 신조는 안심(安心), 안신(安身), 경천(敬天), 수도(修道)의 네 강령과, 성(誠), 경(敬), 신(信)이 세 가지 요체로 구성되었다.

신앙의 앙양(昂揚)을 조직적 체계로 도모하는 동시에 한편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진업단을 조직 유희인력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포덕사업의 뒤를 이어서 대순진리회란 종단조직이 전개된다. 이것은 박우당(朴牛堂) 도전(都典)님 영도하에 있으며 조정산 도주님의 유지를 받들어 종교사업을 활발히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포덕은 진리에 관한 신앙과 그 신앙을 좇는 도인들의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대순진리회에서는 이러한 포덕·교화를 종교의 기본적 사업으로 천명하고 그에 따른 제반적 질서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IV. 포덕 · 교화의 종교적 행위

‘인간이 지니고 있는 현실적인 지식이나 경험, 또는 감각으로 믿어지는 대상을 우리는 흔히 신념(Belief)라 하며, 현실적인 지식이나 경험과 감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거나 표현되지 못하고, 또한 포착되지도 않는 초경험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faith)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러한 믿음의 작용에서 신념에는 주로 지적(知的)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신앙에는 정의적(情意的) 태도 즉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감정이나 의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앙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더욱 전인격적(全人格的)이며, 신념처럼 분명한 모습으로 의식되지 않는이유로, 신념은 개념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지만 신앙의 경우에는 개념으로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항상 남기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정서적 측면에서의 종교적 행위는 다양한 차원과 상황에서 극히 다양한 형식을 갖고, 각 종교에 따라 그 형식도 한없이 달라진다.

이처럼 다양한 종교적 행위는 편의상 대체로 두 가지 유형에 의해서 고찰될 수 있는데, 먼저 기도, 염불, 명상 등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느며, 이를 무형적(無形的) 행위로 파악한다면, 치성, 공양 혹은 도장, 사원, 성당의 건축 등을 유형적(有形的) 행위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종교는 무형적 혹은 유형적 행위를 반드시 동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혹은 내포하지 않은 종교는 하나의 이론이나 인식론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종교에 속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종교라는 개념은 모순된 개념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종교는 반드시 종교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1. 종교적 행위의 성격

우리 인간은 똑같은 체험이나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는 동안에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는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그것에 따라 인간의 행동양식은 일정한 형(型)을 성립하게 되는데, 그러한 행동양식은 환

경이나 조건에 응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며 조절하기도 하는 기능을 보이는데, 여기에 인간의 지성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특히 행동양식은 정형화되기 쉽다.

앞서 언급한 자극과 반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직면한 위기에 대하여 순응하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종교에 있어서 인간행동의 효과를 지성의 인과율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위기를 타개할 수 있었던 행동이 높이 평가되어 이 행동형식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

미개 사회에 있어서 위기는 일정한 계절이나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많아 인간의 지성이나 경험에 기초하여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따라서 위기타개를 위한 행동형식은 고정되기 쉽다. 행동형식이 고정되어 일정한 형을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의무의식(義務意識)이 발생하며, 이러한 의무의식은 종교적 체험에 있어서 성스러움의 관념과 결부되어 금기(taboo)나 신령(神靈) 한 존재가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의식을 일으키며, 행동의 정형은 더욱 고정화되어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의례(rite)는 원리적으로 두 가지 요소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있다. 즉 개인이 자기의 종교적 체험에 응한 행동을 하고 그것이 습관에 의해 「특수한 행동형식」으로서 고정한다는 요소와 그 정형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성스러움」이라는 요소이다.

## 2. 종교적 행위의 특성

종교적 행위의 첫 번째 특징은 종교적 행위가 「자기부정(自己否定)의 행위(行爲)」라는 것에 있다. 종교적 체험에 있어서 각자가 자신과 주변세계에 대해 그것이 티끌처럼 무가치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종교적 체험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자기유한성의 자각이자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는 행위이다.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죄악에 얽매어 생사 윤회하는 범부(凡夫),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원죄를 짊어진 인간의 아들이라는 자각을 하여 그 죄에 깊이 물들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종교적 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은 「비본래적인 자기」의 부정이며 결코 「본래적인 자

기」까지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최악도 오염도 없는 자기, 속(俗)을 버리고 청정해진 성스러운 자기가 본래의 자기로서 긍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종교적 체험에 있어서 자기가 전혀 무가치하다고 통감함과 동시에 세속적인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성스러움에 무한히 매혹됨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체가 자기의 유한성을 자각하여 자기를 부정함에 의해 본래의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의 자기 부정은 본래의 자기에 대한 긍정이며 유한한 자기를 부정한다는 입장에서 자기부정이다. 그래서 성스러움이 실재로써 나타난다는 체험은 자기의 부정을 통해 반대로 낡은 비본래적인 자기를 초월하여 새로운 본래적인 자기가 긍정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의 특질은 종교적 행위가 「세계초월(世界超越)의 행위(行爲)」라고 하는 것에 있다. 자기는 유한하며 현실의 자기는 본래의 자기가 아니라 하는 자각은 그 자기를 함유한 현실의 존재 전체(세계)가 유한하여 비본래적인 것이라는 자각에 연결된다. 따라서 자기부정은 그대로 세계부정이된다. 이와 같은 표현방법을 쓴다면 속된 세계와 성스러운 세계라는 서로 다른 세계가 존재하며 속된 세계의 부정이 성스러운 세계의 출현을 가져온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 틀림없이 이러한 실체론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종교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세계 가운데서 타의 존재자(Seiende)와 서로 관련지어 살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관련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곧 우리의 존재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존재자가 서로 관련하여 서로 만나는 것이 현실세계 바로 그 자체인 것이다. 이 세계는 항상 부정되어야 하는 존재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 위기적 상황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므로 존재자로서 우리 인간존재는 이 세속적인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그때마다 다른 것과 관련하는 방법, 자기의 존재방식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세계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세계 속에 매몰시키는 내재화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은 항상 이와 같은 내재화에 저항하여 세계를 초월한다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그것은 자기가 본래의 자기로 되기 위해서는 현실의 자기를 부정하고, 현실의 자기를 다른 것과 관련지음에 있어서 현실과 함께 만들어 놓은 세계

를 부정한다는 형태로만 이뤄진다. 따라서 세계를 초월한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자」로서 세계에서 벗어나 「본래의 존재」로 됨이다. 그렇게 함에 의하여 모든 존재자와 서로 관련짓고 있는 현실의 세계가 본래의 세계로 되는 것이다.

종교는 이렇게 세속적인 세계를 초월함에 의해 성스러운 세계를 도래하게 한다는 면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종교적 행위로 관련시키면 종교적 행위는 세계초월을 목적으로 하여 이뤄진다는 것이다. 수행의 목적은 신비적 체험의 경지에 드는 것이기도 하며 자기통일이나 번뇌의 해결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어쨌든 현실의 세계를 초월하여 본래의 세계에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그 본래의 성스러운 세계가 어떠한 세계로서 파악되어 있는가는 각자의 종교에 따라 다르다.

### 3. 포덕·교화의 종교적 행위

종교행위는 마음속에 의식화된 종교사유, 곧 신앙과 체험이 겹쳐서 발휘되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런데 거꾸로 종교행위를 통해서 종교신앙 즉 종교사유를 형성하고 심화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종교행위는 대체로 의례화되는 성향이 있어서 일반의 도덕적 행위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의례는 종교신앙을 상징하는 체계가 되며, 그 의례는 몸으로 행동하는 행위 의례와 주문이나 기도와 같이 말로 하는 구두의례가 있다.

대순진리회의 대표적 행동의례에서는 수도공부가 있으며, 포덕·교화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런 모든 행동의례에 구두의례가 따랐고 구두의례로 대표되는 수도공부의 경우에는 주문(呪文)의 연송(連誦)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포덕·교화의 경우에는 주문연송과는 그 의미가 다르지만 역시 구두로 전하는 내용과 행동으로 전하는 의례가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모든 행위는 전술한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조성하고 그 의지를 힘써 행하도록 촉구한다. 그리고 행동의례의 실천은 바로 종교윤리가 되며 종교적 이상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상적 경지에 다가서기 위한 종교행위를 실천에 옮기는데 포덕·교화는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이

며, 성스러움을 지니는 것<sup>106)</sup>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포덕에 있어서 포덕하려는 사람(전도인(傳道人))<sup>107)</sup>과 포덕을 받는 사람(입도자(入道者))<sup>108)</sup>사이에는 몇 가지 상호 관계가 정립되기 마련이다. 그것은 먼저 전달과 변화란 관계가 성립되는데, 전도인(傳道人)은 자신이 확립한 신앙내용을 입도자에게 전달하는데, 그 전달과정에서 상대자는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데 동시에 전도인 자신도 어느 정도 변화를 경험한다. 그 변화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균형적 변화이고 또 하나는 불균형한 변화이다. 앞의 변화는 구천상제님께서 비천하고 빈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가르치신 것과 같이 대상자 상황에 포덕자가 맞추는데서 오는 균형적 변화이고, 뒤의 불균형적 변화는 전도인이 자신의 자리에 머물면서 대상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불균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포덕은 포덕자와 포덕을 받는 피포덕자가 서로를 양보하고 접촉하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다. 다시말하면 서로가 동화(同化)하는 포덕인 것이다. 동화의 포덕이란 개인 또는 단체 사이에서의 공통된 관심과 목적에 대한 행위·태도·심정 등의 결합과 증대를 향한 행위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화의 포덕은 포덕자와 피포덕자가 상반된 점을 조절하여, 동일한 방향으로 귀착점을 찾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화란 전면적으로 입도자는 자신을 갱정(更正)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라 한다면, 포덕자는 새로운 요소를 섭취하는 대치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구천상제님께서 펼치신 포덕행위에는 동화적인 포덕방법의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선천 시대에서 이룩된 포교를 부정하지 않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포덕에 적응시키셨음을 보게된다. 특히 상대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타문화에 대한 양해·반응·존중의 태도가 있으며, 상호간의 이해가 있어야함을 강조하셨다. 한마디로 동류의식이 질게 포덕 행위에 내재되

106) 입도자는 포덕을 통해 입도의식을 경험하게 되는데, 입도의식은 대순진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성스러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 치성절차이며, 종교의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7) 「대순지침」, 15쪽 참조

108) 「대순지침」, 86쪽 참조

야함을 밝히신 것이다. 결국 포덕행위에 있어서 고립·격리 또는 우월적인 태도나 소수집단에 대한 박해나 멸시 등의 태도는 동화적인 포덕행위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sup>109)</sup>

특히 포덕에 있어서 굳게 지켜져야 할 것은 일반적인 포덕자의 감정이입이나 이념이입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는 풍토적인 순화에 있는 것이다.<sup>110)</sup>

## V. 맺음말

포덕(布德)은 덕을 편다는 뜻으로 그것은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양 원리인 대도의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면서, 인도(人道)를 선도하여 윤리도덕의 상도(常道)를 이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화는 그것의 구체적 실천방법으로 겸허(謙虛)와 지혜의 덕으로 사(私)로 인하여 공(公)을 해치지 말고 보은의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 정의되며, 포덕·교화는 『典經』을 바탕으로 하여 상제님의 대순하신 광구천하의 진리로 구제창생키 위한 대인접촉으로 표현된다. 이는 포덕과 교화가 종교의 외적활동 다시 말하면 포교행위(布教行爲)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해원상생 대도의 참뜻을 전하는 것이 포덕이며, 포덕천하(布德天下)가 되어야 광제창생이 되는 의의를 지니면서, 그것이 실현될 때 상제님께서 광구천하(匡救天下)와 광제창생 하시려고 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널리 알려 지상낙원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이 현실속에서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포덕과 교화의 내용에서는 우주를 주재하신 권능의 주인으로서 상제의 무량(無量)하신 덕화와 무변(無邊)하신 권지의 소유주(所有主)이심이 널리 알려져야 하며, 포덕은 덕화의 선양이기 때문에 덕화에 손상되는

109) “포덕은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양 원리인 대도의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다.” 라는 『대순지침』, 19쪽의 내용을 살펴보면 포덕에서 척을 맺거나 원을 쌓지 않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이해하게 된다.

110) 이와 관련하여 『대순지침』, 21쪽에서는 포덕은 전경을 바탕으로 하여 상제님의 대순하신 광천하의 진리로 구제창생키 위한 대인접촉이다. 라고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포덕에서는 제님의 말씀과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의 전달은 자칫 포덕의 의미를 손상시키는 일이 될 것이므로 경계하여야 함을 이해하게 된다.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덕화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언사나 처사로 행동하여 덕화손상을 시키지 말아야 하며, 남의 비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포덕의 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포덕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됨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해원상생의 실현방안에는 성경신(誠敬信)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대순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성·경·신으로 해원상생을 이루며 생사판단도 결정되는 것이며, 성(誠)은 사람의 정·기·신(精氣神)<sup>111)</sup>의 합일의 진성(眞誠)이며, 성(誠)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다. 라고 그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경(敬)은 예의범절을 갖추어 처신처세하는 것이며, 모든 일이 내심의 소정(所定)에 따라 표현되는 것이다.라고 경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신(信)은 『典經』에 “농부가 곡식 종자를 갈무리하여 두는 것은 토지를 믿는 까닭이라”하셨으니 가식(假飾)이 없는 신앙의 본의(本意)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설명되면서 자각이 없으면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므로 일관성의 믿음을 사실화하여 삼계삼법(三界三法)의 성·경·신으로 자아대성(自我大成)을 위한 작업이 신(信)인 것이다. 라고 그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 국가를 믿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될 것이며, 수도자가 믿음이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난법난도자가 된다. 는 점을 강조하여 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포덕·교화·수도 및 모든 일이 성·경·신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라고 해원상생의 구체적 실천강령으로 성경신을 언급하고 있다.

대순진리는 종지로 정의되는데 종지는 이처럼 음양합덕 → 신인조화 → 해원상생 → 도통진경이라는 일련의 순차적 내용을 통해 나타난다.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의미를 분석하면 음양합덕과 신인조화는 원리로써 의미를 지니고 이러한 원리가 해원상생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나 도통진경의 결

111) 인간의 정수(精髓)와 기분(氣分)과 심신(心身)을 말한다.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민중서림 1982), 3238쪽

과를 도출시킨다. 따라서 해원상생과 도통진경은 방법과 결과라는 입장으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 나타나는 해원상생은 도통진경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 이처럼 대순사상이 해원상생으로 대표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원상생은 천지공사의 대표적인 이념이며, 방법인 것이다.

이처럼 전체적인 교리체계의 흐름을 종지를 통해 살펴보면 해원상생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해원상생의 실천방안으로 제시되는 포덕·교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그것이 종단의 기본사업임을 자각한다면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정통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를 우리는 포덕과 교화를 통해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인식은 도주께서 상제님의 진리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 것이며, 그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분명 종통이라는 커다란 명제를 이해하는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상제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틀과 폭을 종지로부터 얻었고 그것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며 현실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 大巡眞理會 敎務部, 『典經』,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4
- 大巡眞理會 敎務部, 『大巡指針』, 대순진리회 출판부, 1894
- 大巡眞理會 敎務部, 『大巡眞理會要覽』,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 大巡眞理會 敎務部, 『布德敎化基本原理』, (其二) 대순진리회 출판부
- 이희승 감수, 『國語大辭典』, (서울: 民衆書林, 1982)
- 양주동 감수, 『國語大辭典』, (서울: 善一文化社, 1977)
-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辭典』, (서울: 民衆書林, 1990)
- 金正泰, 「大巡眞理의 宗旨에 관한 研究」, 『大巡思想論叢』, 제 1집  
(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6)
- 金 鐸, 「甌山 姜一淳의 公事思想」,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5
- 金炯孝, 「原始返本과 解冤思想에 對한 哲學的 省察」, 『甌山思想研究』  
제 5집, (서울: 泰光文化社, 1979)
- 朴龍哲, 「解冤相生에서 冤에 관한 研究」, 『大眞論叢』 제 3집  
(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5)